

‘정서표현 양가성’과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간의 관계: 성격변인의 조절효과*

심 서 영

하 유 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정서표현양가성의 하위요인별로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간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 관계가 성격변인인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에 따라 조절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대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긍정정서와 부적상관, 부정정서, 우울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양가성과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격변인인 외향성과 신경증은 유의한 조절효과가 없었으나, 성실성은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즉, 성실성 수준이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긍정정서와의 부적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고, 부정정서 및 우울과의 정적 관계도 더 강하게 나타났다. 양가성의 하위요인별 차이 및 그 원인에 대해 언급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 정서표현 양가성, 자기방어적 양가성, 정서, 우울, 성실성

* 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BK21 인지 및 심리과학 전문인력양성 및 실용화사업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음.

† 교신저자: 하유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Tel: 02-2123-4045, E-mail: yoojin.ha@hotmail.com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다양한 정서를 경험하며, 자신이 느낀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니고 있다(Baumeister, Tice, & Hutton, 1989). 그리고 표현된 정서는 개인의 처한 상황과 내적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사회적 의사소통의 기능 또한 수행한다(최혜연, 민경환, 2007). 그러나 모두가 모든 상황에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닌데, 이는 정서표현 후 예기되는 결과가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서표현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높을수록 개인은 정서표현욕구와 우려 사이에서 갈등을 하며 자신의 정서표현을 억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표현양식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하나의 행동패턴으로 굳어지게 된다면, 정서표현의 억제가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고 깊어질 수 있다. 실제로 습관적으로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학생들은 대인관계에서 거리감과 감정적인 소외를 많이 느끼며, 정서표현이 억제된 부부는 양쪽 모두 결혼만족도가 낮다는 연구(Gottman & Levenson, 1988; Gross & John, 2003)는 이러한 가설을 검증해주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정서표현을 억제할수록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많이 겪을 수 있다(Fridlund & Newman, 1984).

그런데 최근 들어 정서표현 억제자들이 오히려 합리적인 대처양식을 선호하고 비억제자들에 비해 심리적 질환도 적게 겪는다는 연구결과(옥수정, 2001)가 보고되면서, 정서표현억제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표현과 억제라는 두 욕구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상태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가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학생들에게 3주간 일기를 쓰며 기분과 신체증상을 보고하게 한 연구결과에서도, 정서표현과 적응지표들과의 상관관계는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갈등'은 자존감, 삶의 만족 등과는 부적상관을, 신경증이나 우울 같은 심리적 고통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보였다(King & Emmons, 1990, 1991). 이는 정서의 억제 자체보다 정서를 그대로 표현하고 싶은 마음과 억제하려는 마음 사이에서의 '갈등'이 더 문제가 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King과 Emmons(1990)는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이하 정서표현양가성)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이란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이를 억제하며 갈등하는 것으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의 느낌이 동시에 혹은 빠르게 교차하는 것, 즉 한 대상을 원하면서 동시에 원하지 않는 접근-회피 갈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Emmons & Kaiser, 1995). 정서표현양가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 문항들을 살펴보면, 정서를 표현하고 싶지만 적극적으로 억제하거나, 정서를 표현한 것을 후회하거나, 오히려 원하지 않는 정서를 표현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 정서표현에 대한 자신의 바람과 억제 간의 갈등으로 정서표현양가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King & Emmons, 1990).

정서표현양가성과 비슷한 의미로 자주 혼용되는 용어로는 '정서표현억제(emotion suppression, 이하 정서억제)'가 있다. 정서억제란 정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표현을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과정으로서, 자신이 느낀 정서를 표현하지 않으려 취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한다(Gross & Levenson, 1993, 1997).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억제, 두 개념의 공통점으로

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정서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드러내지 않고 참거나 다른 정서로 표현을 한다는 데 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두 개념의 차이점으로서, 억제제는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누르는 데 더 초점을 둔다. 반면, 정서표현양가성은 한 대상에 대해 표현과 억제라는 두 가지 상반된 욕구가 오가는 '갈등'을 주요 핵심으로 꼽는다.

정서표현양가성은 다양한 심리적인 부적응과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측면에서는 주로 부적정서나 부정적 심리증상이 관찰되었는데, 예를 들어 반추사고와 높은 우울증 수준이 보고되고(Katz & Campbell, 1994), 불안과 같은 심리적 고통과도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Richards et al., 2002; Wong, Pituch, & Rochlen, 2006). 나치독일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하 정서표현갈등)이 부정적 감정을 매개하여 낮은 안녕감을 느끼게 하였다(Ben-Zur & Zimmerman, 2005). 국내연구에서도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우울수준이 높고(하정, 1997), 심리적 안녕감,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 우울, 불안과도 높은 관련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유주현, 2001). 둘째, 인지적 측면에서도 정서표현갈등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경험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alovey et al., 1995). 이들은 자신의 내적 느낌을 이해하는데 어려워할 뿐 아니라, 타인의 정서를 판단하고 이해하는데도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가적이면서 표현성이 낮은 사람들은 단순한 정서 상황에서도 상대의 표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읽으려하는 경향을 보였

다(King, 1998; Mongraine & Vettese, 2003). 마지막으로 대인관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정서표현양가성 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친구의 지지를 유의미하게 높게 지각하며, 주변 인적자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힌 국내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유주현, 2001). 또한 정서표현갈등을 많이 겪는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Emmons & Colby, 1995; Folkman, Lazarus, Gruen, & Delongis, 1986).

정서표현양가성의 하위영역

기존 외국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이 단일차원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정서표현양가성과 심리적인 적응지표간의 관련성을 조사한 최해연과 민경환(2007)은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정서표현양가성은 단일 차원이 아니라 두 개의 하위차원(자기방어적 양가성,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란 자신의 정서적 표현에 대한 무능감 혹은 정서표현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거부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정서표현에 대해 갈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자기보호적인 두려움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고려하거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자 노력하며 정서표현에 대해 갈등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하위척도 중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강박증, 대인간 민감성, 우울에 대해서만 약한 상관을 보였을 뿐, 대부분의 부정적 지표(예; 공격성, 낮은 자존감, 불안, 적대감, 정신증 등)와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앞서 언

급한 부정적 심리지표와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다. 그렇다면 정서표현양가성의 두 하위요인에서 이러한 결과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혜연과 민경환(2007)은 회피적 성격을 지닌 갈등인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정서 조절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갈등인 ‘관계관계적 양가성’과 성격이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정서표현에 대한 정서표현양가성의 역기능적 효과가 작게 나타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두 요인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정서표현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표현기술의 부족을 특징으로 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정서표현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고 관계를 보호하려는 ‘관계관계적 양가성’과는 적응상의 합의가 다른 것이다.

위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첫째, 정서표현양가성은 부정적 심리증상과 관련된다. 둘째, 정서표현양가성은 하위요인에 따라 개인에게 연결되는 심리적 영향력이 다를 수 있는데,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관계관계적 양가성’에 비해 더 부적응적일 수 있다.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경험

긍정정서나 부정정서와 같은 정서경험은 정서표현양가성의 영향력을 탐색하기 위해 빈번히 사용되는 변인 중 하나이다. 특히 정서표현양가성은 부정정서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Emmons & King, 1988; Katz & Campbell, 1994).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정서표현양가성의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차원으로 정서경

험과의 관계를 살펴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정서표현양가성이 관계관계적 양가성과 자기방어적 양가성으로 나뉘는데, 각각의 특징을 고려하여 정서경험을 측정한다면 동일한 결과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관계관계적 양가성이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행동양식으로 인해 나타난다면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비해서 정서경험과의 관계 혹은 정서경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서를 고려하여 하위요인별로 정서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성격변인의 조절효과

사람들은 동일한 상황에서도 각 개인이 지닌 성격에 따라 정서를 다르게 느끼며, 생각하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경험은 신체적, 행동적, 그리고 사회적 측면 등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Diener, Sandvik & Larsen, 1985; Larsen, 1984). Gohm(2003)은 개인마다 정서를 경험하는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동일한 선행사건에 대해서도 개인에 따라 경험하는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는 정도, 이해하는 정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서가 이렇게 성격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면, 정서표현같등을 나타내는 양가성 또한 성격에 따라 다른 양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성격연구는 외향성(extroversion), 신경증(neuroticism), 개방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원만성(agreeableness) 등 BIG 5라는 5요인 이론(Costa & McCrae, 1985)을 근간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5요인 중 정서경험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연구된 외향성, 신경증(Costa & McCrae, 1980), 성실성(McCrae & Costa, 1991)에 주목하여 정서표현양가성이 긍정정서, 부정정서 그리고 부정적 심리증상에 미치는 영향력에서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외향성은 긍정정서에 미치는 기질적 요인으로 가장 주목을 받아온 성격변인이다(Costa, McCrae, & Norris, 1981). 외향성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며, 활기차고, 자신감이 있는 특성들과 관련이 있는데(Nezlek & Plesko, 2003), 이로 인해 양가성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이며 자신감 있게 대처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즉, 외향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양가성의 영향으로 인한 부정적 심리증상을 덜 겪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과 긍정정서, 부정정서, 부정적 심리증상간의 관계에 외향성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신경증은 부정정서와 부정적 심리증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아온 특질이다. 신경증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불안, 두려움, 긴장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Goldberg, 1990).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확대해석하려는 경향성을 지니기 때문에(Chartrand et al., 1993) 적대감, 우울, 심약성과 같은 부정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신경증의 중심은 불안의 주관적 경험이므로(Mischel & Shoda, 1995), 스트레스에 민감하여 위험요소가 사라진 다음에도 스트레스 반응이 느리게 감소하는 특징을 보이며 갈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Pervin, 1996).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신

경증은 주관적 안녕감과 부적으로, 부정적 심리증상과는 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밝혀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서표현양가성과 긍정정서, 부정정서와 부정적 심리증상의 관계에서 신경증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실성은 사회적 규칙, 규범, 원칙들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를 나타낸다. 정서와의 관계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외향성, 신경증과는 달리 성실성은 성실성이 높을수록 긍정정서가 높다는 결과와 성실성이 높을수록 부정정서가 높다는 결과 모두 존재하여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은 편이다. 성실성이 긍정정서를 높인다는 연구를 먼저 살펴보면,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주어진 과제나 상황에 꾸준히 임함에 따라 사회적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긍정정서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John & Srivastava, 1999; McCrae & Costa, 1990, 1991)를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해석해보면, 성실성은 성격적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개인적인 생활과 직장에서 큰 문제, 갈등상황과 마주하는 경우를 애초에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갈등상황으로 인해 겪게 될 부정적 심리증상을 겪게 될 확률도 낮출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성실성은 부정정서를 높인다는 연구에서는,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질서정연함과 완벽을 추구하고, 자기통제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때로는 이로 인해 섭식장애나 강박적 사고나 반복적 행동을 보이는 강박장애를 경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Austin & Deary, 2000; Claridge & Davis, 2003). 성실성의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은 상충되는 결과를 예상하게 한다. 성실성이 높을수록 높은 긍정정서와 적은 부정적 심리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질서,

완벽, 안정감 등 성실성이 요구하는 특징들로 인해 높은 부정정서와 다양한 부정적 심리증상을 겪을 수도 있는 모순된 결과가 예상되는 것이다. 이에 정서표현양가성이 긍정정서를 낮추고, 부정정서와 부정적 심리증상을 높이는 상황에서 성실성이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으나 방향성과 크기는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상반된 연구결과들을 이해하기 위해 정서표현양가성과 성실성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긍정정서, 부정정서, 부정적 심리증상의 수준을 살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서를 표현하는 일은 개인의 적응적 측면과 대인관계 측면에 있어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Shitoa, Campos, Keltner, & Herstenstien, 2004)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정서를 적절히 다루기 위해 노력한다(Gross, 1998). 정서표현양가성은 상반된 정서표현욕구 속에서 ‘갈등’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정서조절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주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관계관여적 양가성’, ‘자기방어적 양가성’이라는 두 하위요인으로 나뉘어 관찰하기보다 정서표현양가성이라는 단일개념을 사용한 연구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유의 정서를 고려하여 정서표현양가성을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한 뒤, 각각의 정서표현양가성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종속변인으로 정서경험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정서경험은 보다 세부적으로 긍정정서, 부정정서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서표현양가성과 부정적 심리증상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부정

적 심리증상 중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며,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경미한 수준으로라도 접하게 되는 증상인 우울(민성길, 2009)을 대표적 부정적 심리증상으로 판단하였다. 기존 최해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신체화, 강박증, 대인간 민감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격성, 피해망상, 정신증 등 9개 심리증상 모두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전반적 심각도 지수와도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9개 적응 지표 중 강박증, 대인간 민감성 및 우울 등 3개 지표에 대해서만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나머지 6개 지표 및 전반적 심각도 점수와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아울러 연구자들은 정서표현 양가성과 심리적 문제 사이의 관계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의해 대부분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참고하여 정서표현 양가성의 2가지 하위 요인 중 ‘자기방어적 양가성’에 초점을 두어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긍정정서, 부정정서 및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관계에서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과 같은 성격적 변인들이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긍정정서와는 부적상관을, 부정정서와 우울과는 정적상관을 보일 것이다.

둘째, 자기방어적 양가성 수준과 “긍정정서” 간 관계를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이 조절할 것이다.

셋째, 자기방어적 양가성 수준과 “부정정서” 간 관계를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이 조절할 것이다.

넷째, 자기방어적 양가성 수준과 “우울”간 관계를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이 조절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19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균 연령은 만 20.5세($SD=2.06$)였다. 검사에 소요된 시간은 20분정도였으며, 이 중 응답에 성의가 없거나 한 문항이라도 무응답 문항을 포함하고 있는 63부를 제외한 총 129명(남 46, 여 83)의 자료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도구

정서표현양가성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양가성 척도(AEQ)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타당화한 한국판 정서표현양가성척도(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 AEQ-K)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게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표현갈등을 많이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하위요인은 ‘관계관여적 양가성’(예, “누군가 나의 신경을 건드릴 때, 느끼는 바를 말하고 싶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려 한다”)과 ‘자기방어적 양가성’(예,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지만 그로 인해 나 자신이 당황하게 되거나 상처받게 될까 걱정된다”)이 있다.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인상관리 및 대인관계 민감성과 관련된 행동 통제를 반영하며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정서표현 불능감과 표현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는 .86이었으며, 하위요인별 문항 간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74였고,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84로 나타났다.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

개인의 성격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5요인 성격이론(five factor model)을 바탕으로 Gosling, Rentfrow 및 Swann(2003)이 개발한 단축형 성격검사(Ten-Item Personality Inventory; TIPI)중 신경증(예, “나는 불안해하고 마음이 잘 상한다”)과 외향성(예, “나는 외향적이고, 열정적이다”), 성실성(예, “나는 신뢰할 만하고 자기조절을 잘한다”)을 측정하는 6문항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은 성격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 두 개가 나열된 각 문항들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지 7점 척도로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외향성은 .79였고, 신경증은 .69였으며, 성실성은 .78로 나타났다.

긍정정서, 부정정서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한 단축형 행복척도(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를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에 응답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서적 요인은 ‘즐거운, 행복한, 편안한’으로 구성된 긍정정서와 ‘짜증나는, 부정적인, 무기력한’으로 구성된 부정정서로 이러한 정서를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긍정정서, 부정정서의 Cronbach's α 는 각각 .78, .70였다.

우울

간이증상검사(Brief Symptom Inventory: BSI)는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 90-Revision: SCL 90-R; Derogatis, 1983)의 단축형이다. 국내에서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표준화하여 제작한 ‘간이증상검사(BSI)’를 사용하였다. 총 53문항으로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 영역인 6문항(예, “나는 쓸모가 없다는 느낌이 든다”)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고, Cronbach's α 는 .78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정서표현양가성의 2요인 구조가 적절한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SPSS 18.0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고, 자료로 수집된 변인들의 상관관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정서표현양가성이 성격적 특질인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에 따라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각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경우 Cohen(1988)¹⁾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조절효과의 유의성 정도인 f^2 값이 Cohen의 임계치인 .02보다 큰 경우에만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¹⁾ $f^2 = (\text{상호작용효과 } R^2 - \text{주효과 } R^2) / (1 - \text{상호작용효과 } R^2)$

결 과

탐색적 요인분석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한 결과, 표본적합도를 나타내는 KMO(Kaiser-Meyer-Olkin Measure)가 .83이었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결과는 $p < .000$ 으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Tabachnick & Fidell, 2001). 모든 측정변수는 구성요인을 추출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항의 선택기준은 고유값(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스크리도표와 회전된 성분행렬에서 2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를 타당화한 최해연, 민경환(2007)에서 관계관여적 양가성과 자기방어적 양가성 2요인구조에 의해 설명되는 총분산은 40.39%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37.86%로 나타났다.

변인들 간 상관

실험참가자의 정서표현양가성과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제시된 바와 같이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종속변인인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긍정정서와 부적상관이($r = -.29, p < .01$), 부정정서($r = .28, p < .01$)와 우울($r = .34, p < .01$)과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결과로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높을수록 긍정정서는 낮고 부정

표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 평균, 표준편차

변인	1	2	3	4	5	6	7	8
1. 관계관여적 양가성	-							
2. 자기방어적 양가성	.52**	-						
3. 외향성	-.21*	-.36**	-					
4. 신경증	.07	.31**	-.13	-				
5. 성실성	.14	-.08	-.04	-.50**	-			
6. 긍정정서	-.01	-.29**	.29**	-.26**	.11	-		
7. 부정정서	.00	.28**	-.15	.42**	-.28**	-.38**	-	
8. 우울	.02	.34**	-.27**	.43**	-.35**	-.59**	.41**	-
평균(M)	28.01	41.57	9.08	8.09	9.55	15.22	11.88	5.76
표준편차(SD)	4.43	7.47	2.71	2.31	2.42	2.96	3.38	4.66

주. N =129, * $p < .05$, ** $p < .01$.

정서는 높으며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증상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긍정정서 관계에서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의 조절효과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긍정정서의 관계가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의 성격요인에 따라 조절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외향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변인을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외향성으로, 종속변인을 긍정정서로 설정하였고,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해 두 독립변인의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작업을 실시하였다 (Cohen & Cohen, 1983). 성별은 주관적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기존 연구(Levenson, Cartensen & Gottman, 1994)를 참고하여 1단계

에서는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예측변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외향성을 투입하였다. 3단계에서는 두 예측변인의 상호작용 항을 투입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단계에서 긍정정서에서 성별이 유의하지 않은 베타계수를 보여 성별에 의한 긍정정서의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3단계에서의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외향성의 상호작용 항이 유의한 베타계수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기방어적 양가성’ 수준과 긍정정서간 관계를 외향성이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외향성이 긍정정서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신경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동일한 방식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둘 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기방어적 양가성’

표 2.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긍정정서		변인	긍정정서		변인	긍정정서	
		β	ΔR^2		β	ΔR^2		β	ΔR^2
1	성별	-.07	.01	성별	-.07	.01	성별	-.07	.01
2	자기방어AE	-.20*	.12*	자기방어AE	-.23*	.11*	자기방어AE	-.28*	.09**
	외향성	.22*		신경증	-.18*		성실성	.09	
3	자기방어AE	.05	.00	자기방어AE	.03	.00	자기방어AE	-.19*	.04*
	x외향성			x신경증			x성실성		

주1. $N = 129$. * $p < .05$, ** $p < .01$, *** $p < .001$.

주2. 자기방어AE는 자기방어적 양가성을 의미함.

수준과 긍정정서 간 관계를 신경증이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신경증 모두에서 긍정정서에 미치는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성실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의 결과를 보면,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긍정정서의 관계에서 성실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Delta R^2 = .04$, $p < .05$). Cohen(1988)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조절효과의 유의성 정도인 f^2 는 .041로서 Cohen의 임계치(.02)보다 커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긍정정서 간 관계에서 성실성의 조절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자기방어적 양가성 점수 ‘평균+1표준편차’를 높은 자기방어적 양가성, ‘평균-1표준편차’를 낮은 자기방어적 양가성으로 구분하고, 성실성도 같은 방식으로 높은 성실성과 낮은 성실성으로 구분하여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성실성 그리고 긍정정서의 관계를 살펴보는 회귀선을 구하여 종속변인 수준을 살펴보았다. 그림 1을 보면, 성실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높을수록 긍정정서가 유의하게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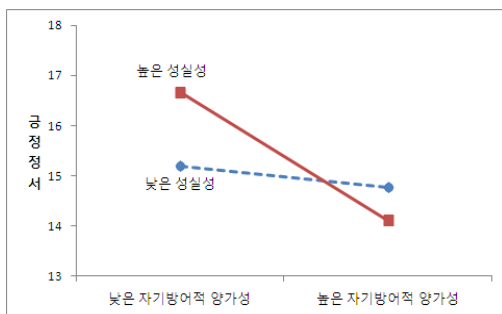


그림 1. 긍정정서에 미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성실성의 상호작용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부정정서 관계에서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의 조절효과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의 성격요인에 따라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부정정서 관계가 조절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방

표 3.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부정정서의 관계에서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부정정서		변인	부정정서		변인	부정정서	
		β	ΔR^2		β	ΔR^2		β	ΔR^2
1	성별	.12	.01	성별	.12	.01	성별	.12	.01
2	자기방어AE	.25*	.08*	자기방어AE	.17*	.19**	자기방어AE	.26**	.14**
	외향성	-.06		신경증	.36**		성실성	-.26**	
3	자기방어AE	-.05	.00	자기방어AE	-.07	.00	자기방어AE	.17*	.02*
	x외향성			x신경증			x성실성		

주. N =129. * $p < .05$. ** $p < .01$. *** $p < .001$.

어적 양가성'과 부정정서간의 관계에서 외향성과 신경증의 상호작용 항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기방어적 양가성' 수준과 부정정서 간 관계를 외향성, 신경증이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반면,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부정정서간의 관계에서 성실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Delta R^2 = .02, p < .05$). Cohen(1998)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조절효과의 유의성 정도인 f^2 는 .03로서 Cohen의 임계치(.02)보다 커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림 2는 그림 1과 같이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성실성의 점수를 '평균±1표준편차'로 나누어 부정정서에 미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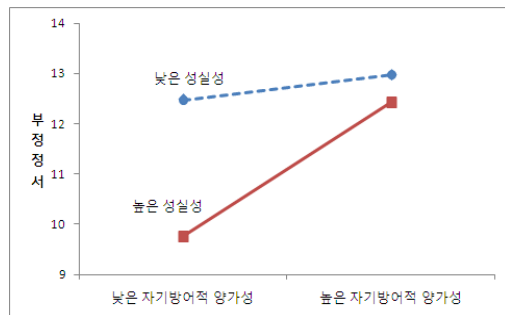


그림 2. 부정정서에 미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성실성의 상호작용

는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성실성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를 보면 성실성의 수준이 높을 때는 수준이 낮을 때에 비해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수준에 따라 부정정서를 느끼는 정도가 더 크게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의 조절효과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의 성격요인에 따라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우울간의 관계가 조절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외향성과 신경증의 상호작용 항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즉, '자기방어적 양가성' 수준과 우울간 관계를 외향성, 신경증이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반면,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성실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Delta R^2 = .03, p < .05$). Cohen(1988)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조절효과의 유의성 정도인 f^2 는 .04로서 Cohen의 임계치(.02)보다 커서 조절

표 4.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의 조절효과

단계	변인	우울		변인	우울		변인	우울	
		β	ΔR^2		β	ΔR^2		β	ΔR^2
1	성별	.12	.01	성별	.12	.01	성별	.12	.01
2	자기방어AE	.27**	.14**	자기방어AE	.23*	.22**	자기방어AE	.31**	.21**
	외향성	-.17		신경증	.35**		성실성	-.32**	
3	자기방어AE	-.04	.00	자기방어AE	-.04	.00	자기방어AE	.17*	.03*
	x외향성			x신경증			x성실성		

주. N =129. * $p < .05$. ** $p < .01$, *** $p < .001$.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마찬가지로, ‘자기방어적 양가성’ 점수와 성실성을 ‘평균±1표준편차’로 나누어 계산한 조절효과의 유의성 정도인 f^2 는 .04으로서 Cohen의 임계치 (.02)보다 커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마찬가지로, ‘자기방어적 양가성’ 점수와 성실성을 ‘평균±1표준편차’로 나누어 ‘자기방어적 양가성’, 성실성과 우울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회귀선을 살펴 그림 3에 나타내었다. 부정정서와 마찬가지로, 성실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높을수록 우울을 느끼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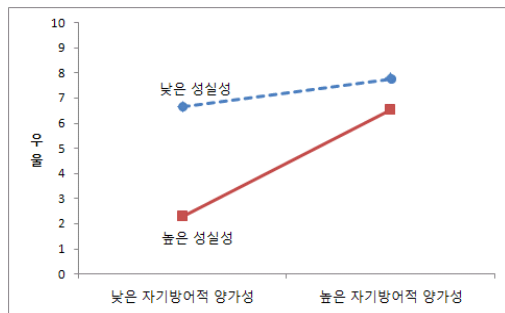


그림 3. 우울에 미치는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성실성의 상호작용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정서표현양가성과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와 문화를 고려하여 정서표현양가성을 ‘관계관여적 양가성’과 ‘자기방어적 양가성’으로 나누어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들 관계에서 성격 변인인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의 조절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데 있었다.

전반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정서표현양가성이 두 하위요인인 ‘관계관여적 양가성’과 ‘자기방어적 양가성’으로 구분이 되며, 구분된 양가성의 종류에 따라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관계관여적 양가성’은 긍정정서, 부정정서와 우울 등 모든 변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부정적 심리적 문제와 관련성이 매우 작거나 없다는 기존 연구(최해연, 민경환, 2007)와도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 반면,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긍정정서와는 부적 상관이 있으며, 부정정서 및 우울과는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금까지 대부분 연구에서 정서 표현양가성은 단일요인이라는 전제 하에 진행되어왔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요인으로 나뉘며, 이렇게 구분할 경우 정서표현양가성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정서적 측면이나 우울 증상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은 결과는 '관계관여적 양가성'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닌 중립적(neutral)인 위치에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반면 '자기방어적 양가성'은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 등 종속변인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와 주효과를 나타내어 정서적 측면 및 부정적 심리증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두 번째 관심사는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간의 관계에 있어 성격변인인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점이었다. 먼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간의 관계에서 외향성은 조절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보다는 긍정적인 사건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는데 (Nezlek & Plesko, 2003), 이로 인해 부정정서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영향도 받지 않는다는 해석 또한 가능하다(Larson & Ketelaar, 1991).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외향성은 정서표현양가성과 정서, 우울간의 관계에 조절효과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변인인 신경증 역시 조절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 신경증은 대인관계 실패와 사회적 고립을 예측하는 대표적 성격변인으로 꼽힌다 (Kelly & Conley, 1987). 그러므로 대인관계 내에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 혹은 억제할

수 있는 양가성이 정서나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신경증이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경증은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과 모두 유의한 주효과를 보여, 신경증이 지닌 부정적 영향력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신경증이 높은 사람들은 이미 상대적으로 높은 부정정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이 일종의 천장효과(ceiling effect)를 발휘하여 정서표현양가성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상호작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과 신경증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성격적 변인을 넘어 다양한 조절변인들의 탐색연구도 요망된다.

한편, 성실성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실성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성실성의 수준이 높으면, 도덕적 기준이 엄격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높은 편인데(Austin & Deary, 2000; Claridge & Davis, 2003), 이는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의 내적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낮은 경우에는 성실성이 높을수록 긍정정서를 더 경험하고 부정정서를 적게 경험하며 우울의 수준이 낮게 나타나 '자기방어적 양가성'수준이 낮을 때는 성실성이 지닌 긍정적인 측면이 발휘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아지면서 내면에서 질서정연하지 못함과 자기통제가 적절히 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큰 괴리감과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정서표현 양가성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개인에게 더 깊

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성실성은 긍정정서, 부정정서 모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는데, 두 가지 모두 근면하며 성취지향을 추구하는 성실성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Barrick & Mount, 1991, 1993). 즉, 성실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열심히 노력함으로 인해 얻는 보상적인 기쁨은 긍정정서로 나타난다. 그러나 책임감 있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생기는 심리적 긴장과 에너지 고갈 상황에서는 부정정서가 높게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자기방어적 양가성’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성실성이 높을수록 긍정정서도 높았지만, 자기방어적 양가성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긍정 정서의 부적 관계가 강화되었다. 마찬가지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부정정서 및 우울에 미치는 정적 효과는 성실성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성실성이 높을수록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부정정서 및 우울간의 정적 관계가 더욱 강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이 일관적이고 안정적이며 통제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정서고갈(emotional exhaustion)과 업무수행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Witt, Andrews, & Carlson, 2004)에서도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은 정서고갈여부와 관계없이 비슷한 업무수행능력을 보였지만,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고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업무수행능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에 비해 오히려 더 낮은 수행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성실성과 정서 경험 간의 관계가 불일치하게 나타난 까닭을 일부 설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평소에는 자신의 노력으로 주변 상황을 통제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긍정정서를 가지게 되지만, 내적갈등이 커지고 자신이 추구하는 안정감, 질서 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긍정정서와 업무 수행능력이 낮아지고 부정정서 및 우울이 증가하는 등 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인 결과들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표현양가성이 정서와 심리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으로는 다양한 변인이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 등 성격변인만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후속연구 진행시 추가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변인으로는 ‘문화’가 있다. 1951년, Lewin은 장이론(Field theory)을 주장하며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였는데, 그가 만든 행동방정식 ‘행동(Behavior, B)= 개인의 특성(Person, P) x 주변 환경(Environment, E)’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 정서표현양가성 개념을 장이론에 접목시켜보면, 양가적인 정서 및 행동은 각자 자신이 지닌 독특한 특성과 당면한 환경의 조합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즉, 개인이 지닌 특성과 개인이 속한 특정 환경이 양가적인 행동으로 인한 불편감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지를 찾는다면, 동일한 양가적 정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심리적 부적응 정도의 차이를 이해할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다. 이 때 환경적 조절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화’이다. 문화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로 개인주의와 집합주의를 들 수 있다. 단어에서 드러나듯이 개인주의는 자신

을 독특한 유기체로 간주하고 이에 초점을 두는 반면, 집합주의는 개인을 한 집단의 일부 분으로 여긴다(Triandis, 1988). 이러한 성향은 대인관계 스타일에서도 차이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에 속한 미국인은 명확하고, 목표중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선호하는 반면, 집합주의에 속한 한국인, 일본인은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받게 되거나 타인에게 폐를 끼칠까를 걱정하여 상대방의 감정과 바람에 더 신경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1996). 즉, 대인간 조화가 중요시되는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자신은 비록 불편한 감정을 겪으며 내적 갈등이 커질지라도 사회적 문맥상 상대방에 맞춰 적절한 다른 감정을 표현하여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 개인이 '집합주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의 정도가 정서표현양가성과 심리부적응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정서표현양가성 하위요인별로 환경변인 중 하나인 '문화'를 고려하여 정서표현양가성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정서표현양가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을 측정하였는데, 세 종속변인 모두 개인의 내면에서 경험되는 현상이다. 정서표현양가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정서를 읽는데 혼란스러움을 보고하며(King, 1998), 타인으로부터 공감이나 사회적 지지를 덜 받는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낸 연구는(Emmons & Colby, 1995) 정서표현양가성이 내면뿐 아니라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내 정서표현양가성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정서표현

양가성이 갖는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정서표현양가성을 세부적으로 구분한 뒤,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긍정정서, 부정정서,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을 '성실성'이라는 성격변인과의 조절효과를 통해 통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다. 정서표현양가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정서표현양가성이 부정정서, 부정적 심리증상과 높은 정적상관이 있다는 단편적인 결론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정서표현양가성의 하위요인에 따라 정서경험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게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정서표현양가성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더 넓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방어적 양가성'이 정서경험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성실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점은 상담 및 임상과 같은 응용심리학의 실제장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발견이다. 대학상담센터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의 상당수가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2011)과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의 상당 부분이 정서표현의 어려움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서표현양가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가 다수 존재함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각 내담자별로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춘 정서표현 훈련을 개발할 시, 성실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자기방어적 양가성'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깊게 경험한다는 점은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문화사.
- 유초롱 (2009). 사회적 규범 준수의 동기적 기반.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민성길 (2009). 제5판 최신정신의학. 일조각.
-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2011). 2011학년도 대학생활 의견조사 주요결과. 서울: 서울대학교.
- 서은국, 구재선 (2011). 단축형 행복 척도 (COMOSWB)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1), 95-113.
- 옥수정 (2001). 억압적 성격 성향자의 정서적 특성과 정서조절 방략.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주현 (2001).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감정과 사회적 지지 및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하 정 (1997). 정서표현 성향과 스트레스 평가 및 대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 사고, 행동영역의 통합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ustin, E. J., & Deary, I. J. (2000). The four 'A's: A common framework for normal and abnormal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8, 977-995.
- Barrick, M. R., & Mount, M. K. 1991.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performance: A meta-analysis. *Personnel Psychology*, 44, 1-26.
- Barrick, M. R., & Mount, M. K. 1993. Autonomy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and job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8, 111-118.
- Baumeister, R. R, Tice, D. M., & Hutton, D. G (1989). Self-presentational motivations and personality differences in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57, 547-579.
- Ben-Zur, H., & Zimmerman, M. (2005). Aging holocaust survivors' well-being and adjustment: Associations with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y and Aging*, 20, 710-713.
- Chartrand, J. M., Rose, M. L., Elliott, T. R., Marmarosh, C. & Caldwell (1993). Peeling back the onion: Personality, problem solv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 correlate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 66-82.
- Claridge, G., & Davis, C. (2003).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disorders*. London: Arnold.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0). Still stable after all these years: Personality as a key to some issues in adulthood and old age. In P. B. Baltes & O. G. Brim, Jr. (Eds.),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3, pp. 65-102). New York: Academic Press.
- Costa, P. T. Jr.,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Costa, P. T., McCrae, R. R., & Norris, A. H. (1981). Personal adjustment to aging: Longitudinal prediction from neuroticism and extraversion. *Journal of Gerontology*, 36, 78-85.
- Derogatis, L. R., (1983). *Symptom Checklist-90-R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 manual-II*. Towson, MD: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Sandvik, E., & Larsen, R. J. (1985). Age and sex effects for emotional intensit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542-546.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947-959.
- Emmons, R. A., & Kaiser, (1995). *Goal orientation and Emotional well-being: Linking Goals and Affect through the self*. In L. L. Martin, & A. Tesser (Eds.). *Striving and feeling: Interactions among goals, affect and self-regulation*. Mahwah, NJ: Erlbaum.
- Emmons, R. A., & King, L. A. (1988). Personal striving conflict: Immediate and long-term implications for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40-1048.
- Folkman, S., Lazarus, R. S., Gruen, R. J., & DeLongis, A. (1986). Appraisal, coping, health status, and psychological sympto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571-579.
- Fridlund, A. J., Newman, J. B., & Gibson, E. L. (1984). *Putting emotion in behavioral medicine: Discrete emotion psychophysiology and its relevance for research and therapy*. In C. Van Dyke, L. Temoshok & L. S. Zegans(Eds.), *Emotions in health and illness*, Grune & Stratton, New York, 117-134.
- Gohm, C. L. (2003). Mood regul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individual differen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594-607.
- Goldberg, L. (1993). The structure of phenotypic personality traits. *American Psychologist*, 48, 26-34.
- Gosling, S. D., Rentfrow, P. J., & Swann, W. B.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 504-528.
- Gottman, J. M., & Levenson, R. W. (1988). *The social psychophysiology of marriage*. In P. Noller & M. A. Fitzpatrick (Eds.), *Perspectives on marital interaction*, 183-200. Avon, UK: Multilingual Matters.
- Gross, J. J. (1998). Antecedent- and response-focused emotion regulation: Divergent consequences for experience, expression,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224-4237.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 348-362.
- Gross J. J., & Levenson, R. W. (1993). Emotional

- suppression: Physiology, self-report, and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970-986.
- Gross J. J., & Levenson, R. W. (1997). Hiding feelings: The acute effects of inhibiting negative and positive emot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95-103.
- John, O. P., & Srivastava, S. (1999). *The Big Five Trait taxonomy: History, measurement, and theoretical perspectives*. In L. A. Pervin & O. P. John (Eds.),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2nd ed., pp.102-139). New York: Guilford Press.
- Katz, I. M., & Campbell, J. D. (1994).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well-being: Nomothetic and idiographic tests of the stress-buffering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513-524.
- Kelly, E. L., & Conley, J. J. (1987). Personality and compatibility: A prospective analysis of marital stability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27-40.
- Kim, M., Hunter, J. E., Miyahara, A., & Horvath, A. (1996). Individual vs. culture-level dimens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ffects on preferred conversational styles. *Communication Monographs*, 63, 28-49.
- King, L. A. (1998).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nd Reading Emotions in Situations and Fac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753-762.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864-877.
- King, L. A., & Emmons, R. A. (1991). Psychological, physic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conflict, and control,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5, 131-150.
- Larsen R. J. (1984) *Theory and measurement of affect intensity as an individual difference characteristic*. Doctoral Dissertation, Univ. of Illinois.
- Levenson, R. W., Cartensen, L. L., & Gottman, J. M. (1994). The influence of age and gender on affect, physiology, and their interrelations: A study of long-term marriag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587-597.
- Lewin, K. (1951). *Field theory in social science*. New York: Harper.
- Lucas, R. E., Le, K., & Dyrenforth, P. S. (2008). Explaining the extraversion/positive affect relation: Sociability cannot account for extraverts' greater happiness. *Journal of Personality*, 76, 385-414.
- McCrae, R. R., & Costa, P. X, Jr. (1990). *Personality in adulthood*. New York: Guilford.
- McCrae, R. R., & Costa, P. X, Jr. (1991).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Using the five-factor model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367-372.
- Mischel, W., & Shoda, Y. (1995). A cognitive-affective system theory of personality: Reconceptualizing situations, dispositions, dynamics, and invariance in personality structure. *Psychological Review*, 102, 246-268.
- Mongraine, M. & Vettese, L. C. (2003).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Implications for interpersonal communication, *Personality and*

-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545-555.
- Nezlek, J. B., & Plesko, R. M. (2003). Affect- and self-based models of relationships between daily events and daily well-be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584 - 596.
- Pervin, L. A. (1996). *The science of personality*. New York: Wiley.
- Richards, A., French, C. C., Calder, A. J., Webb, B., Fox, R., & Young, A. W. (2002). Anxiety-related bias in the classification of emotionally ambiguous facial expressions. *Emotion*, 2, 273-287.
- Salovey, P., Mayer, J. D., Goldman, S. L., Turvey, C., & Palfai, T. P. (1995). *Emotional attention, clarity, and repair: Exploring emotional intelligence using the Trait Meta-Mood Scale*. In J. W. Pennebaker (Ed.),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125-15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hiota, M. N., Campos, B., Keltner, D., & Hertenstein, M. J. (2004). *Positive emotion and the regu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P. Philippot & R. S. Feldman(Eds.), *The regulation of emotion* (pp.127-155). Mahwah, NJ; Erlbaum.
- Suls J., Martin R. (2005). The daily life of the garden-variety neurotic: Reactivity, stressor exposure, mood spillover, and maladaptive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73, 1485-1509.
- Tabachnick, B. G., & Fidell, L. S. (2001). *Using multivariate statistics* (4th ed.). New York: Harper & Row.
- Triandis, H. C. (1988). Collectivism vs. individualism: *A reconceptualization of a basic concept in cross-cultural psychology*. *Cross-cultural studies of personality, attitudes and cognition*. London: Macmillan.
- Witt, L. A., Andrews, M. C., & Carlson, D. S. (2004). When conscientiousness isn't enough: Emotional exhaustion and performance among call centr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s. *Journal of Management*, 30, 149-160.
- Wong, Y. J., Pituch, K. A., & Rochlen, A. B. (2006). Men's restrictive emotionality: An investigation of associations with other emotion related constructs, anxiety, and underlying dimension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7, 113-126.
- 1 차원고접수 : 2012. 9. 30.
수정원고접수 : 2012. 11. 25.
최종게재결정 : 2012. 11. 26.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by Two Factors and Positive/Negative affect, Depression: Moderator Effect of Personality Variables

Olivia S. Sim

Yoo Jin Ha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s between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AE) and 'positive/negative affect' and 'AE and depression'. Three potential moderators of 'AE-Affect' and 'AE and depression' relations were tested: extroversion, neuroticism, conscientiousness. During the examination, one hundred ninety-two undergraduates complete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Korean(AEQ-K),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COMOSWB), Ten-Item Personality Inventory (TIPI) and Brief Symptom Inventory(BSI). Analyses revealed that individuals with 'relationship-involved AE' were not related to positive/negative affect and depression. In contrast, individuals with 'self-defensive AE'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positive effect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negative effect and depression. The relations of 'self-defensive AE-Affect' and 'self-defensive AE and depression' were not different based on levels of extroversion or neuroticism. However, The relations of 'self-defensive AE-Affect' and 'self-defensive AE and depression' were stronger for students with high conscientiousness. Implications for self-defensive AE are discussed.

Key words :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on, Self-defensive AE, Positive/Negative Effect, Depression, Conscientiousness*